

SPORTS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전설’ 신지애, KLPGA 60회 연속 컷 통과 쓴다

LPGA 투어 매치플레이 오늘 개막
김효주 2주 연속 ‘V’...한국 12명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매치플레이 대회가 2일(현지시간) 막을 올린다.

LPGA 투어 2025시즌 유일한 매치플레이 대회인 T모바일 매치플레이(총상금 200만 달러)는 2일부터 5일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새도 크리크 골프코스(파72·6765야드)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는 64명이 출전해 16개 조로 나누어 조별리그를 벌인다. 각 조 1위가 16강에 올라 이후로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올해 대회에는 3월 31일 끝난 포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효주를 비롯해 고진영, 안나린, 양희영, 김아림, 윤이나, 이미향, 김세영, 임진희, 유혜란, 최혜진, 이소미 등 한국 선수 12명이 우승에 도전한다.

2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김효주는 베일리 타디(미국), 마야 스타르크(스웨덴), 나나 마센(덴마크)과 한 조로 묶였다.

올해 LPGA 투어에서는 김아림, 노예림(미국), 에이절 인(미국), 리디아 고(뉴질랜드), 다케다 리오(일본), 김효주가 차례로 우승했다. 인은 중국계 미국인이고, 노예림과 리디아고는 우리나라 고교 선수들이다.

연습뉴스

내일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출격...15년만 우승 도전
투어 역대 20승 최다 타이...1승만 추가하면 ‘새역사’

영광 출신 프로골퍼 신지애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개막전에서 60회 연속 컷 통과에 도전한다.

신지애는 오는 3일 부산 동래베네트스코프클럽(파72)에서 개막하는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에 나선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자신의 59번째 출전을 기록한 이후 1년 만이다.

신지애는 KLPGA 투어 풀 시즌을 3년만 소화했지만, 데뷔 후 출전 대회 ‘100% 컷 통과’를 작성했다. 2006년 KLPGA 투어에 입문한 이후 총 59차례 출전에 단 한 번도 컷오프를 당하지 않았다.

우승 기록 역시 남다르다. 59개 대회에서 20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는 고(故) 구유희가 세운 KLPGA 투어 최다 우승과 타이 기록이다.

또 데뷔 첫 해 3승을 거두며 상급 1위를 차지한 신지애는 2007년(9승)·2008년(7승)까지 3년 연속 상급 왕에 올랐다. 2007년에 기록한 9승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다. 두 번째로 많은 승수는 2016년 박성현이 기록한 7승이다. 톱10 횟수 역시 59개 대회 중 49회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내 무대에서 적수를 찾지 못한 신지애는 2009년부터 미국과 일본 투어로 차례차례 무대를 옮겼

다. 이후 KLPGA 투어에는 한 해 최대 두 번 출전한 게 고작이었다. 최근 4년간으로 좁혀보면 2021년·2022년에는 출전하지 않았고, 2023년과 지난해 한 번씩 출전한 게 전부다. 그의 KLPGA 우승도 2010년 1승이 마지막이었다.

최근 두산건설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신지애는 이번 대회에서 상의 오른쪽 위에 두산건설 로고를 달고 출전한다. 1년 5개월만의 KLPGA 우승 도전이다. 신지애가 KLPGA 프로 60번째 대회 연속 컷 통과와 KLPGA 프로 21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한국 무대에서 20승을 기록한 신지애는 여자 프로골프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는 2008년 세계 4대 투어인 LPGA·JLPGA·KLPGA·유러피언 자갈프(LET) 대회에서 한해에 모두 우승을 달성한 최초의 골퍼로 기록됐다.

이어 2009년 미국에 진출한 신지애는 LPGA 투어에서도 메이저 대회 2승을 포함해 통산 11승을 획득했다. 2010년에는 한국 선수 최초로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2014년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무대를 노크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28승을 기록, LET 투



신지애는 3일 부산 동래베네트스코프클럽(파72)에서 개막하는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에 출전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0일 파주의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에서 인터뷰 중 포즈를 취하는 신지애. 연합뉴스

어 3승과 호주·아시아·대만여자프로골프 투어 등에서 우승을 추가하며 프로통산 65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국내 남녀 선수를 통틀어 가장 많은 우승 횟수다.

최근 신지애는 통산 상급 13억8074만3405엔을 기록, 후도 유리(113억7262만382엔·일본)를 제치며 JLPGA 통산 상급왕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청 장민규, 우수선수권서 생애 첫 ‘태극마크’

남자일반부 투로 태극권전능
8월 세계우수선수권대회 출전

전남도청 우수 장민규가 투로 태극권전능에서 생애 첫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1일 전남도체육회·도우수협회에 따르면 장민규는 지난달 31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7회 회장배전국우수선수권대회 및 2025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고난도 연기를 펼치며 투로 태극권전능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장민규(투로-태극권전능)는 주종목인 태극권에서 9.70점, 태극검에서 9.69점으로 총점 19.39점을 획득하며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이로써 장민규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세계우수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지난 10년간 전남도청 소속으로 활약해온 장민규는 “꿈꿔온 태극마크를 생애 처음으로 달게 돼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전남도청과 전남도체육회, 그리고 전남도우수협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



전남도청 우수 장민규가 투로 태극권전능에서 생애 첫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전남도와 대한민국 우수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병용 전남도우수협회장은 “장민규 선수의 국

가대표 선발은 전남 우수의 자랑”이라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멋진 기량을 펼쳐 메달을 꼭 획득하면 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정후, 3경기 안타·4경기 연속 출루...타율 0.286



산불 피해 복구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000만원 기부도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3경기 연속 안타, 4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이정후는 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다이킨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볼넷 2득점 했다.

3월 30일과 31일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에서 이날도 이정후는 안타를 생산했다. 볼넷도 얻어 ‘멀티 출루’에도 성공했다.

이정후는 1회 상대 선발 로널 블랑코의 시속 131km 커브를 건드려 투수 앞 땅볼에 그쳤다.

4회에는 시속 138km 체인지업을 받아쳤으나 2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6회에 선두타자로 등장해 볼 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블랑코의 바깥쪽 슬라이더 2개를 잘 골라 볼넷을 얻었다.

이정후의 올 시즌 4경기 연속 출루 행진이 완성된 순간이다.

패트릭 베일리의 볼넷에 이어 윌버 플로레스의 좌월 3점포가 터지면서 이정후는 홈을 밟았다.

이정후는 7회엔 라이언 거스터의 시속 130km 커브를 공략해 시속 161km짜리 빠른 타구를 만들었지만, 공이 중견수 정면으로 날아갔다.

안타는 마지막 타석에서 나왔다.

타이 5-2로 앞선 9회 2사 1루, 이정후는 라파엘 몬테로의 시속 142km 스피더를 받아쳐 2루수 옆을 뚫는 2루타를 쳤다.

시속 167km의 총알 타구가 2루수를 뚫고,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로 향했다. 이정후는 그 사이 2루에 도달했다.

이정후가 2사 2, 3루 기회를 만들자 맷 채프먼이 2타점 중전 적시타를 날렸다.

올 시즌 4경기에서 이정후는 6득점을 수확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00에서 0.286(14타수 4안타)으로 조금 떨어졌다. 출루율은 0.412다.

이날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3호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4타점으로 활약한 플로레스, 6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 6삼진으로 막은 조던 히스의 활약으로 휴스턴을 7-2로 꺾었다. 시즌 3승(1패)째다.

또 이정후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 야구장 사고...챔필 상태는?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서 C등급...“점검에 총력”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 관련 야구장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는 기아챔피언스필드가 최근 안전진단에서 C등급(보통)을 받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현황에 따르면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사용하는 홈 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지난해 12월 13일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했다.

시설물 안전법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신축 5년 후 최초 시행하고 이후 3년 주기로 진행해야 한다. 2014년 개장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3년에 1번씩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13일에는 개장 10년째를 맞아 광주시 주체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급으로 나뉘는 시설물 상태에서 챔피언스필드는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경우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하다.

문제는 최근 사고가 발생했던 창원NC파크가 B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창원NC파크에서 NC와 LG의 프로야구 경기 도중 3루 쪽 데크 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떨어져 관중 3명이 다치는 사고

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머리를 다쳐 같은 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이를 만일 31일 숨졌다. 사상 초유의 참사다. 그의 10대 여동생 B씨는 쇄골이 부러져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도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야구팬들 사이에서의 불안감이 커지자 KIA는 본사와 기자동차 광주공장 안전점검팀 인력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로 급파, 지난달 31일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1일까지 구장 전체 시설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KIA 관계자는 “현재 KIA 본사와 광주공장, 챔피언스필드 인력을 모두 동원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점검 결과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면 곧바로 대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BO는 1일부터 3일까지를 예외 기간으로 정하고, 1일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KBO리그 및 퓨처스리그 경기를 모두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관중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창원(SSG-NC) 경기는 3연전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잠실, 수원, 대전, 광주 경기는 2일부터 재개된다.

경기 시작 전에는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경기는 응원 없이 진행되며 경기에 참가하는 전 선수단은 근조 리본을 달고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전경.

사진제공=KIA타이거즈